

## ‘세계인이 찾는 관광지’ DMZ 관광 활성화 시동

도보여행길·평화공원 추진  
특정지역에 조명 예술품 설치

경기도가 DMZ(비무장지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와 함께 도내 평화누리길 및 DMZ 일원에 국비 160억원과 시·군비 70억원 등을 들여 2022년까지 도보여행길인 ‘DMZ 통일여는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국비 100억원과 도비 100억원 등 200여원을 들여 내년부터 2023년까지 DMZ나 인근에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평화공원에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평화 관련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공원 조성을 위해 도는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용역이 마무리되면 내년 기본 조성계획을 수립한 뒤 투자심사 등 정부와 협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도는 지난 8일 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이 사업의 국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내년 1~12월 30억원(국비 15억원, 도비 15억원)을 들여 평화누리길이나 DMZ 일원에 특정 지역(6만6천여

규모)을 선정, 야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조명 예술품을 설치할 방침이다.

다만, 도는 아같은 사업 추진이 정부와 협의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국비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는 아같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DMZ 일대가 세계인이 찾는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경기관광공사는 지난달 26일 판문점 일대를 평화관광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임진각에서 판문점~개성~송악산을 연결하는 ‘평화 모노레일’ 조성 계획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인경환기자 ling@

## ‘DMZ 평화 마라톤 성사’ 이번 주 분수령

4·27 ‘판문점 선언일’ 맞춰 추진  
北동의를 아직 통일부 전달안돼  
준비 여부 따라 미뤄질 가능성도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DMZ 평화 마라톤대회’의 성사 여부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분단 후 최초로 일반인이 DMZ를 지나 북측 땅을 밟는 ‘DMZ 평화 마라톤대회’는 최근 북미 관계가 경색되며 위기를 맞았다. 판문점 선언일(4·27)에 맞춰 진

행될 예정인 마라톤 행사를 불과 6주 앞두고 아직까지 북한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측의 ‘동의를’를 통일부에 전달한 뒤에야 구체적인 행사 계획의 협의가 가능하다. 파주 임진각에서 출발하는 마라톤 행사에는 2만여명이 참여해 상당수 인원이 북측으로 ‘월경(越境)하게 된다. 특히 참가자 중 500여명은 개성공단까지 갔다 파주로 돌아오는 풀 코스를 소화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행사 자체 준비 외에 국경을 넘는다는 부분에서 유엔사·국방부와 의

협이도 거쳐야 한다. 대규모 행사 준비에 불과 5주여가 남았고, 기관과의 협의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주 내로 동의서를 받느냐 못받느냐가 행사의 고비로 전망되는 이유다. ‘동의를’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준비 여부에 따라 5월 초로 행사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북측의 동의서가 아직 통일부로 전달되지 않았다. 준비 여부에 따라 시일이 조금 연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iy@kyeongin.com

## [경기] DMZ 관광 위해 다양한 기반시설 조성

경기도가 DMZ 일대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반시설 구축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우선 오는 2022년까지 예산 230억 원을 들여 DMZ 일대에 '통일을 여는 길'이라는 이름의 '도보 여행길'을 조성하고 오는 2023년까지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야간 관광객을 위한 조명 예술품을 설치하기 위해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학무 [mookim@ytn.co.kr]

## 경기도, DMZ 관광 활성화 겨냥 '킬러 콘텐츠' 만든다



경기도가 비무장지대,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나섭니다.

경기도는 우선 정부와 함께 230억 원을 들여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DMZ 통일을 여는 길'이라는 도보여행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부터 2023년까지 DMZ 안이나 인근에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평화공원에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평화 관련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영한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30억 원을 들여 평화누리길이나 DMZ 일대 6만6천여 m<sup>2</sup> 특정 부지에 야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조명 예술품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DMZ 일대가 세계인이 찾는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관광공사는 지난달 임진각에서 판문점~개성~송악산을 연결하는 '평화 모노레일'을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